

금융이력 부족한 청년에 대안신용평가로 기회 제공

청년신용을 말한다

② 크레파스솔루션 김민정 대표

‘청년 5.5’ 서비스 소액대출 진행 사회적 기업들, 협력해 나아가야

금융의 사전적 의미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담보·보증인 만으로 자금을 공급하던 시절, 우리나라는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런 신용평가 모델도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신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개를 돌리고 있다. 도입목적과 달리 신용평가시스템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한하게 된 셈이다.

◆ ‘거절대상이 아닌’ 청년을 찾아내는 과정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크레파스 사무실에서 만

난 김민정 대표는 인터뷰에 앞서 금융기관이 거절대상이라고 판단한 청년들이 진짜 거절대상인지 확인하고 금융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은 금융이력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다 보니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들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상환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거절된다”며 “금융기관에서 일괄적인 잣대로 거절한 대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 대출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올해 1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5.5’ P2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 그대로 연 5.5% 금리로 소액(100만~500만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를 거절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그는 “약 5개월 동안 30명의 청년에게 7000만원의 대출을 진행했다”며 “다만 기존의 P2P서비스가 투자자의 수익률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년 5.5는 대출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낮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파스솔루션은 휴대전화 사용정보와 이메일 활용정보, 통신기록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한다.



크레파스솔루션 김민정 대표.

/크레파스 솔루션

했다.

◆ “과거 히스토리(History)로 미래 히스토리 예측”

현재 크레파스솔루션은 렌도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 렌도는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핀테크 업체다.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신용평가와는 다르게 때놓고 보면 무관할 것 같은 개인 정보들을 모아 평가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하는지, 메모나 가계부 정리를 하는지, 스마트폰 배터리리는 성실하게 충전

하는 지 등이다.

김 대표는 “렌도의 대안평가시스템을 국내 한 카드사에 시험 적용한 결과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우수 성향 사용자 5000여 명에게 추가 대출 승인이 난 적이 있었다”며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청년 5.5로 대출을 받은 청년들 30명 중 30일 이상 연체를 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김 대표는 “전산학과인데 실습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옷장이 공부만을 할 수 없었다던 학생, 해외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최소 비용이 없어 참가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

었다”며 “몇 년 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가 달라져 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대안신용평가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 “최근 연락처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과 연락이 잦은지, 생활이 안정적으로 짜임새 있게 흘러가는 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안평가시스템을 사용한다”며 “누구와의 메시지, 누구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청년신용문제는 꼬리가 긴 사회문제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이 각자의 힘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신용문제는 또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꼬리가 긴 사회문제라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홀로 해결하기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와같은 문제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신용평가를 기본으로 청년들에게 공유공간, 공유팩토리 등 꿈을 위한 다양한 것들이 융합돼 제공하는 일이 많아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l115@metroseoul.co.kr



버핏서울 팀 단체사진.

/버핏서울

그룹운동 플랫폼 버핏서울, 15억 투자 유치

컴퍼니케이·카카오벤처스 투자 온·오프라인 플랫폼 역할 강화

온오프라인 그룹운동 플랫폼 버핏서울이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카카오벤처스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로 버핏서울은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버핏서울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 및 경영학을 전공한 후 10년 이상 체대 입시교육기관을 운영한 장민우 대표가 이끄는 팀이다.

버핏서울은 2030 직장인 중심의 그룹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오프라인 그룹 운동뿐 아니라 온라인 미션, 포인트 보상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장기적인 의지 관리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2017년 3월 버핏서울 1기를 출범한 후 2년 만에 지원자 1만 2000명을 달성했다.

또한, 버핏서울은 기존 헬스장과 온

동 트레이너가 겪는 불편을 해결한다. 일정 시간 동안 비어있는 헬스장을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트레이너가 영업을 아닌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을 돕기 때문이다.

장민우 버핏서울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버핏서울은 온라인 서비스 강화, 오프라인 공간 확장 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운동 산업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고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는 “개인의 정체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 부각되고 직장인의 여가 시간 활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버핏서울이 다가올 트렌드를 빠르게 선점하고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운동 산업 전반의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금융 좀먹는 악덕소비자 대응책 마련해야”

‘악덕소비자 현황·대처방안’ 토론회

악성민원 등 제도적 예방장치 필요

금융권 내 ‘악덕소비자(블랙컨슈머)’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규정하는 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악덕소비자는 감정도동자의 불만을 키우고,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이들의 역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악덕소비자는 과도한 보상을 노리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특히 금융업계의 경우 민원에 대한 보상이 현금이나 현금대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어서 악덕소비자들의 주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네번째)이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악덕소비자 현황과 대처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진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목표가 되고 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금융 민원 건수 중 7~10%는 악성민원으로 분류된다”며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악덕소비자에 대한 기준이 이해 당사자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에 대해 “각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악덕소비자와 관련한 주요 케이스와 상담 기록을 타 업체 및 소비자들과 공유해서 공통적인 규칙과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주체간의 의사

소통 시스템이 잘 활용된다면 다같이 풀어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악덕소비자에 대한 대응책을 노동자 본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동안 악덕소비자 대응에 있어서 금융사들은 일선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동자들을 보호할 1차적 책임은 금융회사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노동자 보호법을 더 확장해 악덕소비자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KB국민카드-와디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투자 강화

KB국민카드가 국내 클라우드 펀딩 1위 업체 ‘와디즈(Wadiz)’와 손 잡고 ▲신규고객 유치 ▲공동 마케팅 ▲신규업무 발굴 등 전략적 협력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투자 강화를 위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

enture Capital) 펀드’ 조성에 나선다.

KB국민카드는 4일 서울 중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과 신혜성 와디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사업 발굴과 ‘KB국민카드 라이프스

타일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우선 과제로 ‘와디즈’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일정 규모 이상 판매된 우수 제품에 대해 KB국민카드의 ‘라이프샵(Life#)’ 내 스타트업 전용관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